

보도시점 : 2026. 9. 28.(월) 11:00 이후(9. 29.(화) 조간) / 배포 : 2026. 9. 28.(월)

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혜택 계속 이어간다

【관련 국정과제】 60.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

- 추경 이후 1인당 환급금 2배 증가, 환급자도 63만 명 늘어 교통비 부담 완화
- 출퇴근 시차시간 50~83.3% 환급, 12월까지 연장 · 27년 정부안 반영
- 6개월간 시행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 50% 인하 혜택, 9월 이용분까지 적용

□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고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한다. 이에 따라 해당 시간대*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속하여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.

* (출퇴근 시차시간) 5:30-6:30 / 9:00-10:00 / 16:00-17:00 / 19:00-20:00

- 국토교통부(장관 홍지선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김용석, 이하 대광위)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모두의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% 인하하고, 출퇴근 혼잡시간 전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형 환급률(20~53.3%)을 30%p 추가하는 혜택을 시행해 왔다.

* (정액형)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 중 유형별·지역별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 환급
(정률형)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이용자 유형별 환급률을 적용하여 환급

※ 정액형과 정률형으로 각각 산정한 환급액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금액 자동 적용

- 이에 따라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약 60%를 환급 받았으며(추경 이전 환급 비중 31%),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83.3%의 환급 혜택을 받았다.

□ 이러한 추경 혜택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
- 추경 혜택 시행 이후 모두의카드 이용자에게 지급된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41,300원으로 시행 전 20,700원보다 약 2배 증가했으며, 전년 월평균 환급액(16,500원)과 비교하면 약 2.5배 수준으로 확대되었다.

- 실제 환급 혜택을 받은 이용자도 크게 늘었다. 월평균 환급자는 추경 시행 전 283만 명에서 시행 이후 346만 명으로 63만 명(22.3%) 증가하였다.
- 한국교통연구원 분석 결과에서도 시차시간 인센티브 등 고유가 대응 정책 시행 이후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이 2.4%p(26.2% → 28.6%)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효과를 뒷받침했다.

□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제도는 혼잡시간대에 집중된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
- 추경 혜택 시행 후 모두의카드 환급자의 출퇴근 시간대 일평균 통행량은 20.7% 증가하여, 전체 시간대 일평균 통행량 증가율(25.4%)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. 이는 대중교통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대 집중도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.

* (전체 일평균 통행량) 4,100만 건 → 5,142만 건 (25.4%↑)
(출퇴근 시간대 일평균 통행량) 2,030만 건 → 2,451만 건 (20.7%↑)

- 하루 통행량 중 출퇴근시간 이용 비율은 49.55%에서 47.67%로 3.8%(1.88%p) 감소하는 등 혼잡시간대에 집중되던 대중교통 수요가 다른 시간대로 분산되는 양상이 나타났다.

□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분산 효과가 확인된 ‘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’는 12월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며 내년에도 혜택을 이어가기 위해 ‘27년 정부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다.

- 출퇴근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형 환급률을 30%p 추가 적용하는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.

< 출퇴근 시차시간대 환급률 >

구 분	일반 국민	청년·2자녀·어르신	3자녀 이상	저소득층
출퇴근 시차시간*	50%	60%	80%	83.3%
그 외 시간	20%	30%	50%	53.3%

* 5:30-6:30 / 9:00-10:00 / 16:00-17:00 / 19:00-20:00

- 한편,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인하한 ‘반값 모두의카드’ 혜택은 당초 계획대로 9월 이용분까지 적용된다.
- 대광위, 한국교통안전공단, 주관 카드사는 제도 전환 과정에서 이용자의 혼선이 없도록 모두의카드 홈페이지와 앱, 카드사 알림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.
-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장은 “지난 6개월간 시행한 모두의카드 추경 혜택은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드리고,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”며.
- “앞으로도 이용 실적과 시간대별 수요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	책임자	과 장	천재민 (044-201-5080)
		담당자	사무관	손명진 (044-201-5088)
			주무관	김윤희 (044-201-5084)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: TOMORROW